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4월 1일 금요일 (음 2월 24일) 제153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함거를 끌고...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하고... 전주 시내 곳곳 유세열기 '뜨겁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 지난달 31일 선거구 주요 일대는 각 후보들의 유세 현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사진은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가 '함거'를 선거유세차에 싣고 유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왼쪽).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가운데). 국민의당 장세환 후보가 서신동 주요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아침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오른쪽).

4.13 총선 D-12

선거 승리를 위해... '13일간의 혈투' 시작됐다

후보·지지자들 사거리 등 요지에서 거리유세 등 지지 호소
더민주 김성주·국민의당 정동영, 변전소 놓고 설전 벌여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 지난달 31일 선거구 주요 일대는 각 후보들의 '기선 제압'을 위한 각축장으로 변했다. 일부 후보의 경우 후보자는 물론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용 차를 타고 확성기를 이용하는 등 거리유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전주를 후보는 지난달 31일 전주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선거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출정식에서 정 후보는 5년 전 LH유치 실패 이후 몸 담았던 '함거'를 선거유세차에 싣고 유세를 시작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함거는 '조선시대 죄인을 실어 나르던 수레'로 정 후보는 201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주 유치 실패 이후 아무도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는 전북정치 현실 속에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7일간 함거에서 단식한 바 있다. 정 후보는 "LH공사 유치 실패에 따라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실현하기 위해 함거에 몸을 싣었고 이 속에서 절치부심했던 심정을 바탕으로 새만금개발청과 기금운용본부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야당의원 열 몫하는 참 일꾼이 돼서 국가예산 확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표심을 유혹했다. 정운천 후보와 함께 전주를에서 초집전을 펼치고 있는 더민주당 최형재 후보는 전주 효자동 상산고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최 후보는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우리 경제가 허망하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여당)우위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 4·13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경제실 패 정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삶의 희망을 드릴 것"이라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당 전주를 장세환 후보 역시 서신동 주요 사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아침인사를 하면서 공식선거운동 스타트를 끊었다. 장 후보는 첫 일정으로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와 전주시지회 사무실 휴먼시아 아이리나 파트 노인회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장 후보는 "인사·예산에서 전북을 확대하고 차별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고 결제도 비판도 못한 무능한 더민주당을 심판해 '강한 전북'을 건설하고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는 이날 전주KBS에서 진행된 전주

병 후보자토론회에서 송천동 변전소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본보 3월 31일자 3면> 정 후보는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후보는 전주시 용역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정 후보는 "송천동 변전소 위치는 향후 에코시티가 개발될 것을 가정하면 송천역 인근 10만 명이 사는 핵심지이다. 이런 자리에 고압전기가 흐르는 변전소를 짓겠다는 것이냐"면서 "만약 김 후보가 이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주민을 배신한 것이다. 왜 주민편에 서질 않고 헌전 편에 서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송천동 변전소는 지하로 전기가 공급이 돼서 지하에서 다시 배분돼서 에코시티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려고 하면 어떤 인체에 위해함이 있는지 따지면 되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전주시가 용역을 통해서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며 인체에 위해함이 없는데도 반대하는 것은 에코시티 개발을 늦추는 것이다. 대안을 얘기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특별취재반

대학 신입생 막걸리 세례
교육부 "사태 대응 문제없다"
발뺌 관련 비판 목소리 커

최근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재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오물 막걸리를 뿌리는 등 가혹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일부 대학의 신입생 동아리 행사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유감"이라면서 "오늘 해당 대학에 대해 진상 조사 및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 대응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달 초 각 대학에 대학생 집단 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수정·보완해 시행하고,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학 신입생 막걸리 세례와 관련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내 모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재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막걸리를 뿌린 것은 지난달 4일이었으나, 부산 모 대학에서 신입생들에게 오물이 섞인 막걸리가 뿌려진 것은 11일이었으나, 충북대에서 막걸리 세례가 벌어진 것은 18일 충북 모 대학의 모 학과 학생회 발대식이 끝난 뒤였다. 이때문에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대학들을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로서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확산되는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용주 기자

▶ 매일 INDEX

- 2면 야권 3당 대표 '연대' 신경전 가열
- 6면 생그린 건강식품·화학품기능성 '탁월'
- 12면 진안 도통리 청자가마터 전북문화재지정 신청
- 16면 통합체육회, 물리적 통합 이뤄나...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